

산업안전보건의 소통과 협업



안전보건은
정부, 안전보건공단, 민간기관, 사업주, 노동자 단체 등
사회 각 주체별로 노동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정완순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우리나라 산업보건 업무를 50년 이상 수행하고 계신 분들에게 무슨 제언을 해야 할까? 이번에 원고 청탁을 받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서 31년 정도 근무하고 있지만, 경영분야 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고 산업보건 업무는 전문가의 영역으로 생각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일선 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면서 산업보건사업에 대해 평상시 생각한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사고나 질병으로 1년에 10만여 명이 재해를 당하고 그 중에 2,0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1,000여 명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수행해야,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지를 찾아 실행하는 것이 과제다. 그에 대한 답을 몇 가지로 명쾌하게 정리할 수는 없다.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이 사용되는 화

제언

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규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회 각 주체별로 각자의 위치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제도를 도입하였고, 영세 소규모사업장에 작업환경 개선 자금지원사업이나 특수건강진단비용과 작업환경측정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 등 사업장 수준에 맞춰 기술지원, 재정지원,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산업보건 수준은 만족할 만한 정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마땅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어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결될 수 없다. 안전보건은 한 주체에서 잘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각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 정부, 안전보건공단, 민간기관, 사업주, 노동자 단체 등 사회 각 주체별로 노동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산업현장의 안전보건문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문제가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은 몇 차례 있었고, 그런 사건을 계기로 안전보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왔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건강보호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이 높아진 것이 최근의 사례이다.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에 맞는 산업보건 수준을 갖춰야 되는 시기가 됐다. 우리나라의 산업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 각 주체별로 여러 가지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겠지만, 정부와 안전보건공단 외에도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비영리기관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특히 안전보건공단과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안전보건 전문가 집단으로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보건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역량을 더 발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국내·외 산업안전보건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에 동참해 주시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협업이다.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에서는 산재사고 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정부와
안전보건공단
외에도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비영리기관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자 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 산업보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활동이 중요하다. 국내에서 50년 이상 활동한 경험과 노하우를 국내는 물론 국외 산업안전보건기관들과 공유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산업보건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이제는 일본과 중국을 넘어 미국과 유럽에 까지 산업보건의 역량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소규모사업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소규모사업장에서 안전보건의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으며, 몇 년 전 전국을 강타한 메탄올 중독사고 사례처럼 안전보건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도 그간 소규모사업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많은 일을 해왔지만,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위상에 비춰볼 때 여타 산업보건 전문기관과의 차별성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소규모사업장의 노동자 건강보호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더 큰 역할을 기대해본다.

전국적으로 잘 갖추어진 조직과 산업보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산업보건전문가 집단인 보건협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다. 특히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관리자들이 외로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들을 위하여 산업보건업무에 대한 자문, 컨설팅을 할 수 있고, 이들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기적인 소통의 장과 업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우리나라 산업보건 발전에 큰 기여가 될 수 있고, 나아가 보건협회의 위상강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여러 현안은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과의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 사업주와 노동자들은 물론 지자체를 포함한 사회 각 주체들이 소통하고 협업해야 산업안전보건의식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어서고 있어 안전보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요구수준이 높다. 일터에서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산업보건전문가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

사업주와 노동자들은
물론 지자체를 포함한
사회 각 주체들이
소통하고 협업해야
산업안전보건의식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다.